

## 고객만족과 철저한A/S로 업계 선도 인천공장 합병으로 새로운 도약기 마련

포장에 있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모든 포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부자재, 인쇄에 필요한 잉크, 기계, 생산자와 영업, 기술력 등 그 수와 필요성을 정리해 보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이 중 포장재의 인쇄공정에 반드시 필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제판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인천시 남동공단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이전식을 치른 공성기업은 우리나라 제판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기술력을 갖춘 업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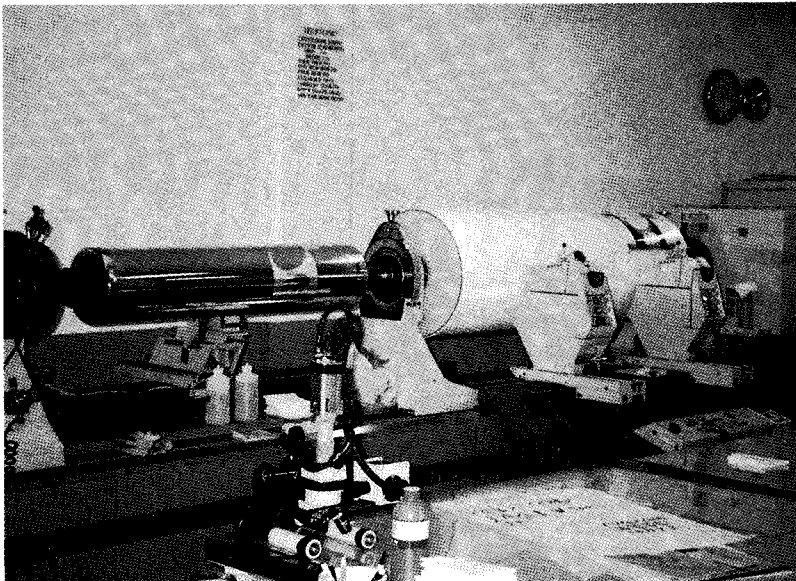
공성기업은 1977년 삼민화학공업(주) 제판기

술부에서 7년여 동안 근무하며 기술을 쌓아 온 창업주 김영길 사장이 국내 제판업의 정착을 목표로 창업한 것이 그 모태로 창업 이래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관리자 및 기술자 등 전직원이 현 박복순 사장을 중심으로 탄탄한 기술력과 고객만족의 고품질 실현, 납기 준수 등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판업계는 물론 전포장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는 업체로 인정받고 있다.

박 사장이 경영을 맡은 지 9년여 동안 오직 고객만족의 동판생산과 잘못된 품질에 대한 철저한 A/S정신을 강조해 온 공성기업이 무엇보다도 자신하는 것은 다른 제판업체들과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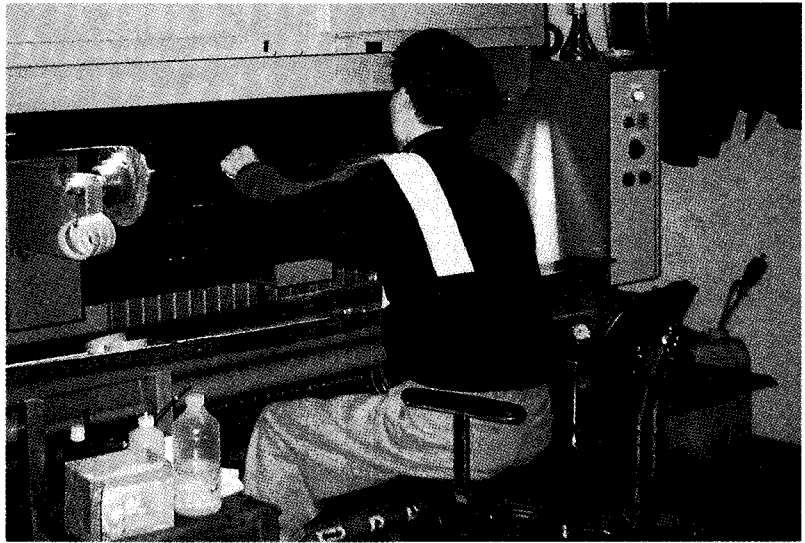
기계의 기종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오퍼레이터들의 우수한 실력과 최형종 전무를 비롯, 임원진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이다.

공성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중인 이사는 “다른 제판업체들은 대부분 헬컴이라는 기종을 사용하는데 반해 저희 공성기업은 스위스의 DTG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필름레스에 있어 기술적인 차이를 가질 수



▲ 필름없이 출력가능한 Heliio System

있었으며 동판없이 디스켓으로 사전교정이 가능한 옴니아스 인쇄기를 갖추고 있는 가람프로세스와 공조체제를 이루어 더욱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의 차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들이 우수하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조각 시스템을 근사치까지 접



▲ 공성기업의 제판공정

근할 수 있어 고객만족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공성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지난 달 10일 안산과 부천에 나뉘어져 있던 두 공장을 인천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현 공장으로 합병한 공성기업은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한데 모인 듯 한껏 들뜬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다.

“공장이전 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노사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 원만하게 이전할 수 있었고, 합병시 발생한 잉여인력도 그간 미비했던 영업권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인원감축을 피했습니다”라는 김 이사는 이러한 인원재배치를 통해 공장이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회사의 분열을 없앨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성기업의 특성을 들라면 물론 제판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이와 함께 노사간에 전혀 허물이 없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서로의 존칭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부르고 사무실에서나 작업장에서 서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친근함이 매우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번에 남동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새로 지은 공장의 건물은 우선 아끼자기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눈에 띈다. 전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동선이 적고,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넉넉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한눈에 알 수 있는 장점이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공간활용을 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작업장 2층에는 침대와 책상, 컴퓨터 등 개인공간이 안락하고 따뜻한 2인 1실의 기숙사가 5개 배치되어 야간작업을 한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 가까운 곳에 연고가 없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고, 이 식당과 연결된 직원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휴게실이 3곳 마련되어 있다.

한 곳에는 2대의 당구대와 2대의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흡연이 가능한 휴게실의 한 곳은 바둑과 장기 등을 둘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나머지 한 방은 헬스기구들을 다양하게 구비해 놓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새로 지은 공장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원들의 휴식공간은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한가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모임이 공성의 특징으로 눈에 띄는데 바로 2년 6개월쯤 전에 만들어진 '공우회'라는 직원들의 자치모임으로 경조사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근무년수에 따라 용자금급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공성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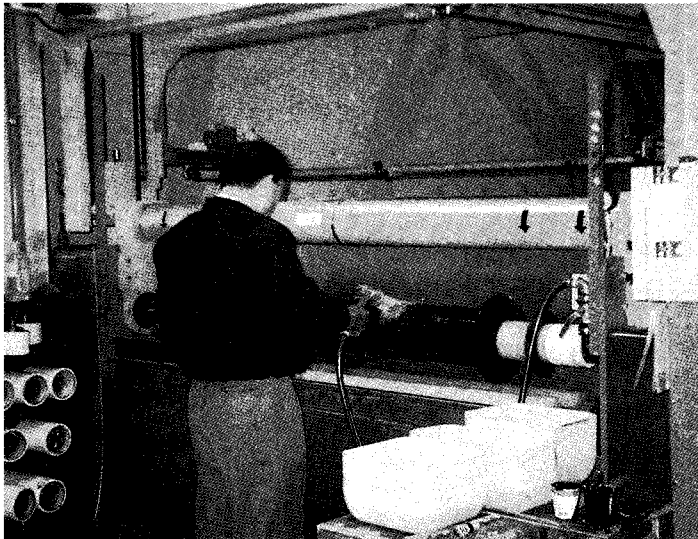
직원들의 자치모임인 '공우회'를 활성화하고 자금을 좀 더 넉넉하게 늘리기 위해 사내 자판기 사업과 폐자재 처리사업을 모두 공우회에서 관

리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월 100만 원정도의 고정수입이 공우회로 유입돼 직원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려지다 보니 최근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려움에 봉착한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매일 4시에 있던 간식시간과 월 직원회식을 직원들이 자진반납해 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을 모으기도 했다.

고객만족을 위한 품질의 개선과 문서의 정리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성기업은 최근 많은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ISO 인증작업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인증을 획득하는 것보다 실제 작업장에서 그에 준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실천해 가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다.

98년을 품질관리의 해로 정한 공성기업은 최근 가격경쟁이 너무 심해 전반적으로 업계에 어려움이 많지만 회사의 작은 손실보다는 제판업계, 나아가서는 포장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에서 오는 어색함이나 어수선했던 공성기업을 나서면서 따뜻하고 차분한 느낌의 기분좋은 여운을 느낄 수 있었고, 어려운 시기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야근차비를 갖추는 공성의 기운찬 모습에 포장업계의 어려움이 곧 저 멀리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K]



▲ 부메랑 작업 현장

윤지은 기자